

광주시, 플랫폼 이동 여성노동자 쉼터 지원 인기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심리 상담·치유 등 두 달새 452명 이용 보험모집인·요양보호사 등 일터 이동 중 사용 '커피 쿠폰' 제공

광주시가 플랫폼 이동 여성노동자에게 스트레스 해소와 휴식 기회를 제공하는 '일상쉼터 지원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부터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와 함께 추진하는 '마음 쉽고 함께 하는 여성 플랫폼 이동노동자 일상쉼터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플랫폼 이동 여성노동자 452명이 힐링서비스를 이용했다.

플랫폼 이동노동자는 가사관리사, 보험모집인, 요양보호사, 학습지 방문교사, 대리운전기사, 배달기사 등으로, 주로 고정된 업무공간 없이 일터를 이동하며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플랫폼 이동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심리검사, 심리치유 프로그램, 1대1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또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일터로 이동하는 동안 휴식할 수 있도록 커피 쿠폰 등도 제공하고 있다.

신창호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앞으로도 여성 플랫폼 이동노동자의 심리적 안정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한 '일상쉼터 지원사업' 프로그램에 참가한 플랫폼 이동 여성 노동자들이 꽃꽂이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

화물차 불법증차 꼼짝마

광주시·자치구 합동조사 나서

광주시가 5개 자치구와 함께 화물자동차 불법 증차 합동조사에 나섰다.

광주시는 10일 "서류조사, 이중등록 등 화물자동차 불법 증차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대폐차 신고·수리 업무를 맡고 있는 광주화물협회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의심차량 추출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5개 자치구와 함께 광주화물협회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해 대폐차로 인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기로 했다.

또 불법 증차된 차량은 감차 명령과 유가보조금 지급정지·환수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에 불법증차 전수조사를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광주화물협회와 자치구로 각각 이원화돼 있는 폐차 신고·수리와 등록 업무를 자치구로 일원화하는 등 화물자동차법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지구를 위한 '플러팅' 동참을

시, 연말까지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집중 홍보...제도 정착 나서

광주시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 홍보를 위해 나섰다.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제는 시행 4년차를 맞았지만 단독주택 등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시민 인식 확산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 12월 말까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는 생수·음료 투명페트병의 내용물을 비운 후 라벨을 떼고 압축해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투명·반투명 봉투에 배출하는 제도다.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새로운 투명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되거나 옷·식품용기 등 고급 재생 소재로 쓰인다.

공동주택은 해당 제도를 2020년 12월 25일부터 우선 시행했으며 단독주택 등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동 소식지, 전광판 등에 배출 요령을 안내하고 공동·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배출 요령 준수 여부 등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 있다.

분리배출이 취약한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에는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자원순환가게, 재활용동네마당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정미경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며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닌 자원을 배출한다는 생각으로 투명페트병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9월 환경부, KIA 타이거즈 등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투명페트병 회수 시범사업'에 참여해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관중이 별도 배출한 생수·음료 투명페트병 1.75t을 수거하기도 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쪽방촌 어르신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나세요"

주거취약계층 재난안전교육 겨울철 대비 방한물품 전달도

광주도시공사는 최근 "동구 쪽방상담소에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추위에 대비해 방한물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오래된 모텔,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는 어르신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화재시 피난설비 사용법, 응급처치법, 화재예방, 겨울철 개인위생, 119 어플 설치 사용법 등 주거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생활안전 교육 등을 진행했다.

교육 후에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주거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방한물품을 전달했다.

배운식 광주도시공사 사업본부장은 "이번 맞춤형 체험교육을 통해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위기대처 능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임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기관 모집

2025~2027년 위탁...18~19일 이틀간 방문 신청

광주시가 임동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할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신청서 접수는 18~19일 이틀 간이다.

임동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1990년 개관했으며, 부지 1107㎡, 연면적 1825㎡(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체력단련실·회의실·탁구장 등을 갖추고 있다.

운영 사무내용은 복지관 시설관리, 근로자의 문화·체육·교육·건강사업,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건강사업,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대관사업)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또는 분사무소)가 광주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다.

최근 3년 이내 근로자복지관 운영 경험이 있거나 노동복지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한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신청서는 18~19일 이틀간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 노사상생팀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최종 사업자 선정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근로자복지관은 지역 근로자와 시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공간인 만큼 복지관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법인·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